

강원 내일 영하 날씨에 칼바람까지 '공공'

등록 2013.12.18 17:12:02 | 수정 2016.12.28 08:32:41



【강릉=뉴스시스】김경목 기자 = 강원도는 19일부터 추워지겠다.

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영동의 아침기온은 영하 3~0도, 영서 영하 8~영하 2도, 산간(대관령-태백) 영하 8~영하 5도로 도내 전역에 동장군이 몰아치겠다.

낮 최고기온은 영동 1~3도, 영서 영하 4~영하 1도, 산간 영하 7~영하 4도로 영하권에 머물러 춥겠다.

영동은 찬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체감온도가 더 떨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.

영서도 약간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.

영동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영서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새벽 한때 눈이 오겠다.

눈은 1~3cm 정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.

동해 중부 해상에는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2.0~4.0m 높이로 파도가 쳐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.

해안가에는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안가 출입에 조심해야 한다.

한편 울릉도 독도는 이날 흐리고 비가 오겠다.

photo31@newsis.com

